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2010년도 표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요8:29, 시37:4)

행동지침

- 1.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전하는 교회
- 2. 성수주일을 철저히 실천하는 교회
- 3. 바른 신앙, 바른 신학, 바른 생활의 모범이 되는 교회

† 발행인 : 이종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장애인지원 메시지

사랑의 완성, 아가페타운



이종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그리스도인은 우리사회에서 가장 불리한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의 권익을 위하여 일할 의무를 가진 이들입니다. 구약시대에는 불의한 재판관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고 신약시대에는 선을 보고 행치 않는 자를 악한 자로 저주하셨습니다.

가장 불리한 입장에 서있는 이들의 권익을 존중히 여기고 그들의 권익을 찾는 데 앞장서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사랑은 값싼 동정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고 자신을 희생하면서 그의 권리를 회복시키는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상에서 만난 이들 중 50%이상이 장애인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의 사역도 결국 예수님 사역의 연장선상에서 보아야 한다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소중히 여길 뿐 아니라 저들의 친구가 되어 예수님처럼 저들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사역이었습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말씀을 순종하려면 언어와 환경이 유사하면서 남다른 성격을 가진 장애인을 땅 끝으로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교회 설립 이후 빈약한 자 구제를 서울교회 3대 목표 중 하나로 세우고 날마다 기도하며 헌신하여 이루어낸 '사랑의 집 건립'이 '아가페타운'이라는 크고 아름다운 열매로 우리 눈 앞에 나타났습니다. 장애인 최초 대학인 호산나학교가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아가페타운'에서 오프닝 감사예배를 드림으로 서울 교회는 종합복지타운 운영의 새 장을 열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사랑을 전하고 실천하는 아가페 타운을 주신 하나님께 크나큰 영광을 돌립니다.



■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

- TV : 케이블 CH 42(CTS,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 위성 CH 412(CBS TV) 매주일 밤 9시(각 지역별로 케이블 TV로도 시청가능) KSB(코리아 위성방송) 제3채널(북중미 지역 해외방송) 매주 월 오후 1시30분(한국시간)
- 라디오 :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 HLKX 106.9 MHz(극동 방송)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 인터넷 : 기독교 TV (<http://www.cts.tv>) · 기독교 방송 (<http://www.cbs.co.kr>) · 중국어 인터넷방송 (<http://www.c-highway.com>)

제8회 교구 찬양대회

5월14일(금) 오후7시 - 본당

우리교회 16개 교구 가족들과 호산나 학교, 에바다부, 디아스포라부원들이 주님께 찬양으로 경배드리며 선의의 경쟁을 하는 2010년 교구찬양대회가 5월14일(금) 오후7시 본당에서 열린다.

교구찬양대회는 '한마음 한가족 축제'와 더불어 격년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로 8회째가 된다. 교구찬양대회에 참가하는 교구 및 부서에서는 자유곡 1곡을 선정하여 연습하고 찬양대회 당일 연습한 곡만 찬양하면 되며 심사기준은 참여도 50점, 음악성 20점, 준비성 20점, 관중호응도 10점으로

하며 박노철 목사, 장석남 목사, 박정선 장로, 김영준 장로, 고성진 집사, 류종기 집사 등이 심사위원으로 수고하게 된다. 최고 득점한 교구는 사랑상을, 2위 2개 교구는 믿음상·소망상의 순서로 결정되며 희락상, 화평상, 충성상으로 각각 트로피를 수여할 예정이다.

또한 5월16일 주일 찬양예배 시간에 사랑상을 수상한 교구는 특송을 담당하게 된다. 모든 교구와 부서가 하나 되어 열심히 준비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한다.

나의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고광환 집사(에바다부)



저는 6.25전쟁 때 피난 가는 도중 열병에 걸려 사경을 헤매다가 청력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았지만 지금은 듣지 못하는 농아인이 된 것이 오히려 제게 큰 축복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가족은 어머니와 네 분의 형님, 그리고 한 분의 누나가 계시는데 모두 불교신자 아니면 무신론자입니다. 이런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저 역시 농아인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으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족 중 저 혼자 농아인이기 때문에 집에서는 대화 가 잘 안되고 외로워서 농아학교 친구들을 가까이 사귀게 되었고 그 중 교회 다니는 친구들의 영향을 많이 받아 가끔씩이나마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 후 청년이 되어



제주도에서 잠시 살다가 서울에 와서 본격적으로 교회를 다니게 되었는데 그 때부터 하나님 말씀에 은혜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나의 삶이 얼마나 기뻐졌지요. 부지런히 주일 성수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집사 임명을 받고, 또 안수 집사가 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뿐인가요?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받아 좋은 아내를 만나 두 자녀를 얻어 행복한 가정도 꾸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저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격하여 그 사랑의 빛을 조금이라도 값는다는 심정으로 자비량 선교사로 3년간 캄보디아에 가서 농민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서울교회에서 임규현 목사님의 지도 아래 에바다부의 부흥을 위해 저와 아

내가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듣지 못하는 것은 불행한 일이지만 주 안에서 듣지 못함이 오히려 감사의 조건이요 축복이 되었음을 담대히 말할 수 있음을 주님께 감사드리고 또한 영광을 돌립니다.

장애인 주일 - 예수님 사랑합니다

ET PSALLENTE IN CORDIS VESTRIS



편지왔어요

복음을 위한 큰 목적을 인정하여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교정

나의 사랑하는 서울교회 성도들께 드립니다.

평강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을 뵈 수 있는 시간이 다가오면서 손가락으로 날 짜를 세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대원 린백 총장께서 이곳 스코틀랜드에서 열리고 있는 WRF총회에 참여하시면서 내게 제시한 명예신학박사 학위를 교수회와 이사회 결정사항이므로 다시 요청하면서 학교의 명예를 동문으로서 크게 높였고, 국내외적으로 복음을 위한 큰 목적을 인정하여 교수전원 일치와 이사회를 통한 결정으로 총장자신의 말에 의하면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게는 한없는 영광이지만 별로 한 일도 없는데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는 것도 황송한데 그것도 내 모교가 주는 학위인지라 머리 돌 곳을 찾지 못하겠다고 했으나 계속 강권하여 오늘 아침 마침내 수락을 했습니다. 오는 5월27일 웨스트민스터 졸업식에서 학위 수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석좌교수 Chair를 개설하는 것은 아직은 대답할 수 없다고 하자 그것과 학위는 별개의 것이라 했습니다.

WRF총회에서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대표회장으로 인사의 말씀을 하면서 한국교회가 가고 있는 방향을 제시하므로 좋은 반응을 받았습니다. 전 세계 80개 개혁신주의 교단장 회의에서 나를 공동의장 3인중 하나로 선출하였으나 내가 사양을 하였더니 긍정적인 대답이 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세계 개혁신주의 지도자들과 좋은 만남의 시간을 가지면서 역시 웨스트민스터 출신들이 지도자로 각 나라에서 일하고 있음을 확인했고 우리 KIMCHI동문들과 내 옛 제자들도 성장하여 자기나라를 대표하여 참여한 이들도 만날 수 있어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35년 전 학위를 받았던 St. Andrews대학을 방문하면서 '산천은 의구한데 인결은 간 데 없네'라는 옛시조 한 수가 생각났습니다. 이곳에 유학중인 한국 신학생들과 만남의 시간을 가졌고 이번 주일엔 이곳 한인교회에서 설교하고 19일(월)출발하여 20일(화) 서울에 도착예정입니다. 긴 여정 무사히 다녀오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계속 기도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 안에서
목사 이종윤 드립니다

나의 하나님

요양보호사로서의 첫 걸음



김인철 (호산나대학 제1회 졸업생)

저는 호산나대학교 노인케어학과 제1회 졸업생 김인철입니다. 저는 졸업 전 요양보호사 1급 자격증을 취득, 지난 11월, 12월 두 달간 강원 1동 노인복지관에서 실습 후 올 1월부터 요양보호사로서의 첫 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9시까지 출근해서 어르신들께 명찰을 달아 드리는 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주무셔야 되는 분들께는 편히 주무실 수 있도록 잠자리 보아드리고, 점심때는 모든 어르신들께 식사 가져다 드리며, 식사하기 불편한 어르신분들께는 식사보조일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후 근무는 어르신들이 복지관에서 이뤄지는 프

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프로그램이 마친 후 간식을 나누어 드리는 일을 합니다. 간식 후에는 콩고르기와 퍼즐 맞추기 활동을 하시는 어르신들의 말벗이 되어 드립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귀가 하신 후 화장실 청소를 하고 6시 퇴근합니다.

처음 일을 시작할 때는 낯설고 일이 익숙하지 않아 힘들었지만 지금은 하루 일과를 마치고 돌아갈 때에 보람을 느낍니다.

학교를 떠나 사회의 첫 걸음을 내딛고 직장 선배님들 함께 하며, 어르신들을 도우는 보람 있는 일을 하면서 저



호산나대학의 요양보호사 교육과정

는 하루 하루를 잘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를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부모님과 사회인으로서의 교양과 덕목을 가르쳐 주신 이동기 부학장님과 김성수 교수님과 여러 학과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혜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신 이종윤 목사님께 깊은 감사 드리고 많이 수고하여 주신 오정수장로님과 서울교회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름답고 멋진 가평 아가페 타운의 호산나대학 제1회 졸업생이 된 것을 기쁘고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학교의 명예와 이름을 빛내는 성실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아가페타운에서의 아침



김대일 (호산나대학 사무자동학과 2학년)

2010년 1월 가평으로 이전한 학교에 등교하던 날.

이른 아침 어머니의 알람소리가 나를 잠에서 깨운다. 나는 따뜻한 이불 속에서 나오기가 싫어서 꼼지락 거린다. 어머니께선 오늘 개학식이라 가평으로 가야 되니까 일찍 일어나라고 하신다.

나는 가평이라는 그 소리에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 학교 갈 준비를 하고 집을 나섰다. 마을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갈아타고 한터 공원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통학버스에 몸을 싣고 가평에 있는 우리의 대학으로 갈 생각을 하면서 들뜬 마음으로 빨리 출발하기를 기다리며 친구들과 인사를 했다.

드디어 버스가 출발했다. 도로엔 차들도 많고 길가에는 출근과 학교로 향해 분주하게 가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호산나대학 통학 버스에 탄 아이들은 나와 같이 들뜬 마음으로 종알거리며 즐거워하였다.

오늘부터 새로 지은 가평에 있는 학교에서 공부한다고 생각을 하니깐, 떨리는 기대감이 밀려 왔다. 드디어 통학 버스가 학교 정문을 통과하고 여러 교수님들께서 반갑게 맞이해 주셨다. 멀리서 학교를 바라보니 이제 정말 대학 같았다. 나는 새로운 기분이 들었고 설레이었다. 가평에 있는 학교는 커피숍, 제과제빵실, 뷰티케어, 노인케어 실습실등 서울에 있는 학교에서는 볼 수 없었던 수많은 강의실이 있었다. 정말 내가 기대 했던 그리고 기다렸던 멋진 캠퍼스였다.

난 처음 호산나 대학에 입학 했을 때 대학 같지 않아서 많이 실망했다. 대학 건물이 커다랗고 웅장하게 생겼을 거라고 생각하고 호산나대학에 왔는데 교회

안에 좁은 강의실, 체육관도 없는 그런 곳이어서 얼마나 실망한지 모른다. 처음엔 즐겁지가 않았다. 그렇게 한달, 두 달... 지나고 1학년 처음 대학생활 때 여름캠프에 갔다와서 친구들과 어울리고 대화하고 즐겁게 보내고 난 후 나의 생각이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바뀌었다.

벌써 2학년이 되었다. 왓싸! 이제는 나는 가평의 넓고 넓은 캠퍼스가 있는 진짜 대학생 같은 대학생이 되었고, 기숙사 생활도 하면서 매일 매일 학교 생활을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고 있다.

룰루랄라. 행복하다. 정말...



김정희 (호산나대학 서비스학과 2학년 장민지 학부모)

“엄마, 학교가 너무 좋아, 짱이야, 짱!!!” 들뜨고 상기된 목소리로 학교가 좋다고, 진짜 좋다고 본인이 쓸 수 있는 단어는 총 집합해서 전달해주는 내 딸은 21살. 올해로 호산나학교를 다닌 지 4년을 넘겼다.

버스 타는 것조차 걱정되었던 아이, 태우기가 더 조심스러웠던 지난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

다. 처음 서울교회 속에 있던, 호산나학교는 조금은 어색하기도 했지만 부학장님을 비롯한 모든 교사들과 호산나학교를 세운 서울교회의 이념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과감하게 일반 고등학교를 접기로 했었다. 참 잘 했다.

만약 호산나학교가 세워지지 않았다면 우리 아이는 엄마에게 있어 또 다른 두근거림의 연속이었을 것이다. 불안감으로 답답함으로...

마침내 많은 시간, 깊은 열정으로 아가페타운의 부지가 마련되었고 그 타운의 정 가운데에 호산나대학이 우뚝 솟았다.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였고, 서울교회의 모든 성도분들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진거라 믿고 그 믿음 또한 변치 않는다.

교육기관은 여기저기 많지만,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찾지란 참으로 어려웠다. 17년을 키우는 동안에는 서울교회의 호산나대학은 또 하나의 위대한 초석이 된 것이라 생각한다.

더 나아가 국가기관 등에서도 미처 생각지 못한 사회의 약자에게 ‘희망’이라는 큰 꿈을 갖게 했고, 성실함과 안락함을 가질 수 있는 가평의 맑은 공기도 주었다. 이 얼마나 고마운가?

봄이다. 난 개인적으로 우리아이들은 봄의 향기에 비유하고 싶다. 눈보라와 꽂꽂 언 땅에서도 때가 되면 개나리의 진노오란 신비함, 진달래의 발그레함으로, 때로 활짝 핀 벚꽃의 웃음으로 표현될 날은 온다. 지체는 될 수 있겠지만, 그 언젠가는 그렇게 피어오를 수 있음이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서울교회의 모든 성도분들, 교수님들, 부모님들 모두가 우리아이들의 멋진 생을 키워나갈 동반자가 되었기에 호산나대학에 주님의 기적을 또 한번 기대해 본다.

나의하나님

손으로 말하는 사랑



박은영 성도 (에바다부 수화통역사)

초등학교 6학년 때 뒤에 앉은 친구가 손으로 'ㄱ' 'ㄴ' 이라면서 손가락으로 글자를 만들어 보여 주었던 것, 교회에서 중등부 때 했던 수화뮤지컬 공연 등 수화라는 언어가 무엇인지는 몰랐지만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수화라는 언어가 자연스럽게 인식이 되고 마음에도 남았습니다.

수화를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어디서 어떻게 배워야 할지 모를 때 서울교회 주보에 실린 수화교실 개강 안내문은 자연스럽게 저를 에바다부로 향하게 했습니다. 한주 한주 배우는 수화단어들이 신기하게도 다 머릿속에 기억 되었습니다. 손을 사용해 누군가와 대화가 된다는 사실은 정말 너무나 놀랍고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수화와 인연이 결국 수화통역사까지 이르게 했습니다.

에바다부에서 예배 통역을 하기 시작하면서 손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 평소에 입으로 부르며, 귀로 들었던 그 찬양의 가사를 더 깊이 묵상하며 찬양하게 되었고, 말씀도 뜻을 더 깊이 생각하며 집중해서 읽

게 되었습니다. 구정 연휴 성경통독사경회에 참여해 오직 눈으로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를 사모하는 농아인들, 예배시간 목사님들의 설교를 수화통역으로 보면서 아멘!! 아멘!! 을 수화로 외치며 뜨겁게 말씀을 받는 농아인들, 손을 통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을 드리는 농아인들의 모습은 통역자로서 예배자인 나의 모습을 되돌아 보며 많은 반성을 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려는 그들에게 방해꾼이 되지 않기 위해 통역자인 내가 더욱더 바르게 성경을 알고 읽고 배우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겠다 라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누군가와 친해지고 싶다면 그들의 다른점이 아닌 그들과 나의 공통점은 무엇인가를 찾는 것입니다. 수화통역사로서 앞으로 농아인과의 다름이 아닌 같음을 찾아가고 공유하는 통역사가 되고자 합니다. '언어' 라는 똑같은 매개체인 수화는 어떤 울동이나 몸짓이 아닌 하나님께서 농아인에게 주신 독특하고도 아름다운 언어이자, 음성이며 소리입니다. 수화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수화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수화를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태신자 작성서 제출

2010년도 전도편지를 발송하기 위해 '태신자 작성서' 를 주보에 삽지로 배부하였다.

서울교회에 실제적으로 나올 수 있는 반경에 거주하는 태신자를 작성하여 개인적으로 헌금함이나 사무국 혹은 다락방을 통하여 교회에 제출하면, 이종운 목사님의 이슬처럼 영롱하고 향기나는 전도편지를 문서전도팀에서 매주 1회씩 50주간 발송하게 되며,

교회의 각 기도팀에서 기도로 지원하고, 연말에 태신자 초청 행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전도의 열매로 영광 돌리게 될 것이다.

모든 성도들이 빠짐없이 태신자를 품어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에 참여하는 기쁨과 영광을 누리자.

화요정오음악회

4월 20일(화) 정오 - 한지윤 오르간 연주회



한지윤 / 오르간

- 성결대학교 교회음악과 졸업
- 독일 프라이부르크 국립음대 전문 연주자 과정 및 최고 연주자 과정(K.A., K.E.) 졸업
-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국립음대

최고 연주자 과정(le Diplome de specialisation) 졸업
 - 제 53회 뉘른베르그(Numberg) 국제 오르간 콩쿨 1위 입상
 - 현재, 연세대, 성결대, 장신대, 서울장신대, 나사렛대 출강
 안동교회 오르가니스트

특별찬양

오늘 찬양예배 특별 찬양은 에바다부와 사랑부의 찬양으로 드린다. 장애인주일을 맞아 에바다부는 수화찬양(지휘:이순임, 반주:고수경)으로 "여기에 모인 우리"를, 사랑부는 시낭송(윤여빈, 박장군/지도:김세원)과, 멜로디언 합주로 '참 좋은 신 주님' 외 두곡과 멜로디언 독주(김만성/지도:정성우), 독창(조의철)으로 드린다.

4월 성경통독자 시상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 <2독>(6교구) 유을상 집사 (4교구) 정금선 성도 (11교구) 김해수 집사 (13교구) 임광호 집사
- <1독>(6교구) 강영순 권사 (14교구)배옥선 집사

찬양대원 세미나

4월 27일(화) 오후 7시 30분-101호

찬양대원 세미나가 4월 27일(화) 오후 7시 30분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있다. 강사로는 이상길 집사로 현재 지구촌교회 지휘자, 한국 합창 총연합회 회장, 인양시립합창단 상임지휘자, 중앙대학교 합창지휘 겸임교수이다. 모든 찬양대원은 반드시 참석하여 찬양대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소명과 자질에 대해서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동정

- 이종운 목사는 22(목) 한국로잔월례회,23(금)한장총 임원회를 각각 소집한다
- 개인전: 김정미 집사(13교구), 4월 21일(오후 6시) -27일, 인터넷센터
- 주간식당 봉사: 제1스데반회(4.18) 제2스데반회(4.25)
- 금주의 식사: 서명철 목사 가정 (장례를 은혜중에 마치고)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주 일	I 부	오전 9시
	II 부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주일 오후 5시	
영 어 예 배	주일 오전 11시20분	
수 요	I 부	오전 11시
	II 부	오후 7시
금 요 기도회	오후 8시30분	
새벽기도회	오전 5시30분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서울교회 되게 하소서.
2. 해외 집회 중이신 이종운 목사의 건강과 영력을 위해
3. 세계에 흩어져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위해
4. 북한의 군사적 도발 중단되고 복음화된 통일조국 비전이 이루어지도록

■ 교회우시는 길

